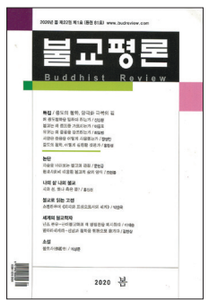
“中道, ‘최대 다수 최고 깨달음’ 실천”

불교평론 봄호 ‘중도의 철학’ 주제 다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요즘 같은 갈등과 분열의 시기에 강조되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中道)’이다. 어느 것에 치우치지 않도록 ‘양극단에 대한 비판’을 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은 신상환 중관학당 대표의 말처럼 ‘정향적(正向的)’이다. 이 같은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불교 대표 학술계간지 〈불교평론〉 봄호(통권 81호)는 중도 철학의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중도의 철학, 양극화 극복의 길’을 주제로 한 특집에서 홍창성 미네소타주립대학 교수는 ‘중도의 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통해 중도 철학의 실천론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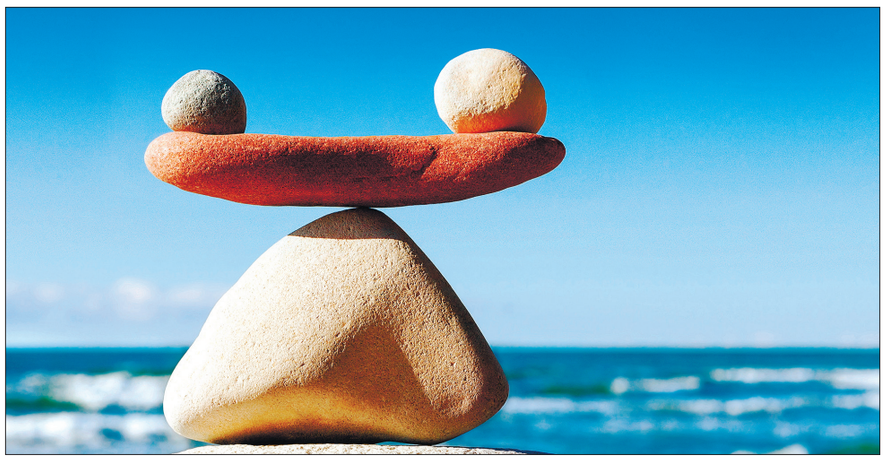
그는 어떠한 행위가 깨달음에 기여하는지 못하는지를 살피고 이를 통해 행위의 옳고 그름을 산출하는 ‘깨달음 산출 원리’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중도적 행위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창성 교수는 “모든 사건과 행해지는 모든 행위가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모든 중생의 깨달음에 얼마나 기여 또는 역행하느냐에 따라 평가되고 가치가 부여된다. 그래서 불자들은 최대다수 중생의 최고 깨달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행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다수 중생의 최고 깨달음 산출 원리’는 자연스럽게 팔정도를 포함하며 현대인의 복잡한 삶에서 각각의 경우마다 올바른 길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며 “가장 적절하고 옳은 길을 찾아주는 원리가 중도를 따르게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최대다수 중생의 최고 깨달음 산출 원리가 바로 중도의 원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서재영 〈불교평론〉 편집위원이 권두언에 제시한 ‘중도의 실천’도 눈길을 끈다. ‘불이중도(不二中道)’를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나와 남을 고립시키는 아상이라는 울타리를 부술 것을 제언했다. 실재하지 않는 허상인 아상은 “세상을 나누고 대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서재영 위원은 “중도의 시작은 아상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중도의 길은 나에게 치우치지 않고 너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인식의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밝혔다.



좌우 균형을 맞춘 돌처럼 중도는 어떻게 실천 · 구현해야 하는지가 당면과제다. 〈불교평론〉봄호는 중도철학의 실천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홍창성, 깨달음 산출원리 전제
공리주의 입각한 실천론 제시
서양 · 유교 등서 중도 다루어
창간 21주년 맞아 지면 혁신
‘불교소설’ 매호 개제될 예정

이어 “모두가 우한을 탈출할 때 환자를 돌보기 위해 우한으로 달려간 의사들이 있었다. 간호사들은 진료에 진력하기 위해 곱게 기른 머리카락을 잘랐다”면서 “나만 살겠다고 아우성일 때 남을 배려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양보하고, 공존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중도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불교평론〉 봄호 특집에는 △왜 중도철학을 말해야 하는가(신상환) △불교는 왜 중도를 가르치는가(이중표) △유교는 왜 중용을 강조하는가(최일범) △서양은 중용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장영란)가 실렸다.

이와 함께 〈불교평론〉은 이번 호부터 창간 21주년을 맞아 새로운 기획으로 지면을 혁신했다. 표지는 창간 당시 디자인으로 바꿨으며, 지면은 독자들 눈높이에 맞춰 보기 쉽게 개편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앞으로 매호 수록되는 불교소설이다. 이는 침체된 불교 문단에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봄호에 게재된 첫 소설은 1983년 ‘월간문학’으로 등단한 이상문 소설가의 ‘불호사(佛護寺)’다.

매호 시인들이 발행한 시집 중에서 불교 관련 시를 5편씩 골라 소개하고, 저명인사들의 신앙고백인 ‘나의 삶 나의 불교’도 신설됐다. 이번 봄호 ‘나의 삶 나의 불교’는 동국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를 지낸 홍신선 시인이 ‘시와 선, 하나 혹은 둘?-나의 시, 나의 부처님’ 주제로 글을 썼다.

현대불교학을 개척한 불교학자를 조명하는 ‘세계의 불교학자’와 세계고전을 불교적 안목으로 공부하는 ‘불교로 읽는 세계고전’도 신설됐다. ‘세계의 불교학자’에는 △난조 분유-근대불교학의 새 방법론을 제시하다(이태승) △말라라세케라-신념과 철학을 행동으로 옮기다(김한상)가, ‘불교로 읽는 고전’에는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박찬국)가 각각 수록됐다.

고려 ‘육조대사법보단경’ 보물된다

문화재청, 3일 지정예고
‘最古’판본으로 가치 높아
고려 과거합격증도 함께

고려시대 간행된 선종(禪宗) 경전인 〈육조대사법보단경〉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고려 후기 선종 경전 〈육조대사법보단경〉 1책을 비롯해 630년 전에 발급된 고려시대 과거합격증인 ‘최광지 홍패’ 1점,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1점을 보물로 지정예고했다”고 3월 3일 밝혔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은 1책(64장)으로, 1290년(충렬왕 16)년 원나라 선종의 고승 몽산덕이(蒙山德異, 1231~1308)가 편찬한 책을 고려 수선사(修禪社)에서 당시 제10대 조사인 혜감국사 만항(萬恒, 1249~1319)이 받아들여, 1300년(충렬왕 26년) 강화 선원사(禪源寺)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현재 경상남도 사천시 백천사에 소장되어 있다.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육조 혜능의 선사상을 이해하거나 선종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경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간행됐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고려시대 간행된 ‘육조대사법보단경’의 서문.

사천 백천사 소장본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우리나라에 전래된 관련 경전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간행됐던 ‘덕이본(德異本)’ 계열의 책들과도 판식(板式)의 차이점이 보여 고려시대의 특징을 보여준다

문화재청은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선종의 핵심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침서이자 한국 선종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불경으로 불교사에서도 중요하다”면 “이 중 백천사 소장본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같은 종류의 경전 중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육조대사법보단경〉은 불교학 연구는 물론, 고려시대 말기 목판인쇄문화를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 · 서지학 가치가 높아 보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함께 보물로 지정예고된 ‘최광지 홍패(崔匡之 紅牌)’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崔匡之)가 1389년(고려 창왕 1년) 문과 ‘병과 제3인(丙科 第三人, 전체 6등)’으로 급제해 받은 문서로서, 약 630년 전 고려 말에 제작된 매우 희귀한 사료다. 특히 홍패에는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라는 국새(國璽)가 찍혀 있다.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 항아리’는 17세기 말~18세기 초에 제작됐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중 크기와 기법 면에서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어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한편,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예고한 고려시대 〈육조대사법보단경〉 등 3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 · 검토하고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불교학연구회 봄논문발표회 중지

코로나19 여파로… 봄 · 가을발표회 통합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가 3월 21일 개최하기로 했던 봄논문발표회를 중지키로 했다.

불교학연구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3월 21일로 예정돼 있던 본논문발표회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월 2일 밝혔다.

중지된 봄논문발표회는 오는 9월 19일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 열기로 한 가을 논문발표회와 통합해 개최하기로 했다.

임승택 불교학연구회장은 “코로나19의 예기치 않은 만연으로 인해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격상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일선 교수와 연구자들의 건강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한여름 군산엔 ‘문화재 夜行’ 뜬다

8월 13~15일 내항 근대역사박물관

근대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문화재 답사가 진행되는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군산 문화재 야행(夜行)’이 군산의 여름밤을 책임진다.

전북 군산시는 “한밤의 문화재 체험행사인 ‘2020년 군산 문화재 야행’을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내항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문화재 답사와 함께 전시, 공연, 체험 등 4개 분야 60여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행사장 일대에는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 대한제국 시대에 지어진 군산세관, 조선은행, 일본 제18 은행, 신흥동의 일본식 가옥 등이 있다. 1899년 개항 이후 도입된 외부 문물과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보여주는 근대 문화유산들이다.

군산시 관례자는 “군산 문화재 야행은 일제강점기 역사를 되돌아보며 미래를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군산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에너지 파동 성명학
창업·지도자반 모집

■ 이름으로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 이름만 듣고 운명을 말해주면 신비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는 말소리에 따라 각기 다른 파장의 에너지가 발생 합니다. 우리의 말은 하는 순간 파장을 타고 널리 퍼져 나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같은 소리지만 어떤 소리는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소리는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는 소리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어떤 에너지의 힘 때문입니다. 즉 칭찬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비판을 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과 같은 원리 입니다. 소리파장으로 부르는 이름에 따라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작명. 개명. 법명. 호. 회사이름. 상호. 각종번호. 집 주소. 핸드폰번호. 차량번호에 따라 소리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과 회사명을 개명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다고 만족해합니다.
힘들 때 이름을 바꿔보세요.

서울
서울동국대 미래융합대학
1. 에너지 성명학 : 3월 13일(개강) 14 - 16시
2. 융합명상가족세우기 : 3월 13일(개강) 18시 ~ 20시

천안
접수처 : 천안시 동남구 청수3길 37호 학마을 명상선원
성명학 수시모집 : 010-8634-7851
융합명상과 내면의 고민 치유(가족세우기)
셋째주 토요일 오전 10시 - 일요일 오후 5시까지

부산
접수처 : 부산시 수영구 남천1동 26-16번지 학마을 명상선원
지하철 : 남천역 2,4번출구
성명학 수시모집 : 010-5515-0918(간사)
융합명상과 내면의 고민 치유(가족세우기)
둘째주 토요일 오전 10시 - 일요일 오후 5시까지

에너지 파동 성명학회장 도윤(정행) 스님

백문이 불여일견!

초청하면 지역별 방문! 견본으로 염불을 해보면 내 귀에 내 염불이 지극히 편안해서 염불 테크닉이 잘 들어감으로 공양간 보살들이 스님! 염불이 와이리 좋아졌노?! 테프 소리보다 훨씬 낫다. 갑자기 왠일이고? 몰려오면 사찰 중흥이 확실함으로 기존 법당 시설가의 절반가에시설 장기할부 가능

방문시 설악 신흥사 및 토굴까지 2천여 시설 명단제공

본품은 본사의 개발품으로 시중에 없음!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 글은 법적증서!

장점 : 1. 초간편시설 2. 앰프다루기 1초 3. 고장없음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완벽시설, 290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방생용, 각종 마이크 구경)

■ 마이크소리 구경 조건으로 신청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 Sound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